

우상혁, 2m35로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韓 육상 새 역사



우상혁은 1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개인 실외 최고 기록인 2m35를 넘으며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다. (사진=우상혁 SNS 캡처)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정상에 오르며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작성했다. 우상혁은 1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오리건

개인 실외 최고 기록 경신하며 정상에 올라 코비엘스키·해리슨 물리치고 한국 최초 우승 "꿈만 꾸던 그날이 와...응원해준 모두 감사"

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개인 실외 최고 기록인 2m35를 넘으며 우승했다. 그는 2m33을 넘은 노베르트 코비엘스키(폴란드), 주본 해리슨(미국)을 제치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트로피와 우승 상금 3만 달러(약 4000만원)의 주인공이 되며 환히 웃었다. 다이아몬드리그는 1년에 총 14개 대회가 열린다. 13개 대회에서 쌓은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매기고, 이 중 상위 6명이 '왕중왕전' 격인 14번째 대회 파이널 진출권을 얻는다. 한국 선수가 다이아몬드 파이널에 오른 건 우상혁이 최초다. 지난해 우상혁은 랭킹 포인트 7위(16점)에 머물러 파이널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높이뛰기가 열린 6개 대회

중 4개 대회에 참가하며 파이널에 진출했다. 도하(2m27)와 로마·피렌체(2m30)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해 7점씩을 얻었고, 취리히(2m31)에서 3위에 올라 6점을 따냈다. 스톡홀름에서는 약전후 속에 기록을 남기지 못했으나, 누적 랭킹 포인트 20점을 챙기며 4위로 파이널에 이름을 올렸다.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15, 2m20, 2m25, 2m29를 가볍게 넘었다. 2m29까지 한 번에 넘은 건 그와 해리슨밖에 없었다. 이후 우상혁은 2m33도 한 번에 성공하며 단독 1위가 됐다. 코비엘스키(1차 시기 성공), 해리슨(3차 시기 성공) 등이 바짝 추격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 개인 최고 기록이었던 2m35를 3차 시기에 바를 살짝 건드리는 아슬아슬한 점프로 넘은 뒤 특유의 미소를 지

으며 환호했다. 이어 도전한 크비엘스키, 해리슨이 2m35를 넘지 못하면서 우상혁은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새 역사를 쓴 우상혁은 자신의 SNS에 다이아몬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히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육상 선수로서 어릴 적부터 꿈꾸던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트로피, 꿈만 꾸던 그날이 왔다. 너무 행복한 하루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날 우승으로 우상혁은 파리행도 확정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높이뛰기 기준 기록은 2m33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의 기록을 인정해, 우상혁은 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금메달이 기대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다. 이번 대회에서 높이뛰기는 내달 2일 오전 예선을 치른 뒤 4일 오후 결선을 소화하는 일정이다. 그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람방 대회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바 있다. 이번 항저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1998 방콕 대회, 2002 부산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이진택 이후 21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높이뛰기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뉴스

부상자명단에 등재된 오타니, 결국 시즌 마감... "더 강해져 돌아올 것"

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29)가 부상자명단(IL)에 오르며 결국 정규 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MLB닷컴은 17일(한국시간) "오타니가 오른쪽 옆구리 부상으로 15일째 IL에 올랐다. 그의 정규 시즌은 공식적으로 조기 마감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들은 전날 오타니의 로커에서 야구 도구가 없어졌고 깨끗하게 정리됐으며 시즌 조기 마감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다. 이번 시즌 오타니는 강력한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거론됐으나 MVP로 향하는 걸음을 일찍 멈췄다. 투수로 23경기 10승 5패 평



피할 순 있지만, 내년 시즌 마운드에 서는 건 어려워 보인다. 오타니의 에이전트인 네스 발레로는 MLB닷컴을 통해 오타니가 어떤 수술을 받더라도 내

팔꿈치·옆구리 부상 겹쳐 투타 모두 중단...시즌 조기 종료 타율 0.304 44홈런 95타점·10승 5패 평균자책점 3.14 기록

군자책점 3.14를 기록했고, 타자로는 135경기 타율 0.304 44홈런 95타점 20도루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오타니는 지난달 말 오른쪽 팔꿈치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아 남은 경기에서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었다. 남은 시즌 동안 타자로 활약할 계획이었으나 옆구리 부상까지 당하며 11경기 연속 결장했다. MLB닷컴은 "오타니는 이르면 다음 주 팔꿈치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페리 미나시안 에인절스 단장은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타니가 두 번째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지리)를

년 시즌 타자로 뛴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밝혔다. 필 네비 에인절스 감독은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오타니는 적극적으로 재활 훈련에 임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굳게 믿고 있다"며 강한 신뢰를 보였다. 올 시즌을 마치고 에인절스와 계약이 만료돼 프리에이전트(FA)가 되는 오타니는 빅리그 사상 최초로 5억달러 이상의 계약액을 맺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술과 재활이 불가피해져 예상보다 연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

무안군청 검도팀,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올해만 단체전 우승 3회, 준우승 2회, 3위 1회 등



제20회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을 차지한 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영, 손인준, 이광철 감독, 김태일 코치, 김한범, 유하늘, 양동관, 이후성, 최병욱, 이혜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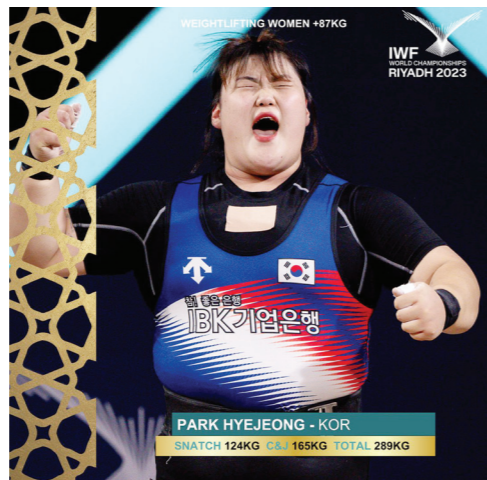
무안군청 검도팀이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체전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무안군청 검도팀(감독 이광철)이 지난 7일부터 10

일까지 무안 스포츠폰에서 열린 "제20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에서 2개의 은메달, 2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남·여 28개 팀(남자17,

여자11개팀)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무안군청은 단체전에서 인천광역시청(16강전)과 전라북도(8강전)를 각각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수원시청을 3:2로 꺾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청주시청을 만나 팽팽한 접전 끝에 3:1로 승리하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무안군청 양동관이 3단부 개인전에서 출전,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최민규(부산시체육회)에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무안군청 유하늘도 6단부 결승전에서 조진용(용인시청)을 만나 팽팽한 접전 끝에 아쉽게 한점을 더 내주며 1:2로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어서, 4단부 개인전에서는 김한범(무안군청)이 동메달, 통합부에서 손인준(무안군청)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광철 무안군청 감독은 "추계-하계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전남에서 열리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낼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청은 올 시즌동안 단체전 우승 3회, 준우승 2회, 3위 1회를 하며 대한검도회 연말 시상 최우수단체상 수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박혜정,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최종량급 한국 최초 3관왕

박혜정(고양시청)이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최종량급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3관왕을 달성했다. 박혜정은 지난 16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87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4kg, 용상 165kg로 합계 289kg을 들어올리며 3관왕을 차지했다. 마리 테이슨-래곤(미국)이 합계 277kg을, 리세스 카베자스(에과도르)가 합계 276kg을 들며 박혜정의 뒤를 이었다. 한국 선수가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최종량급에서 우승한 건 지난 2021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회 손영희(부산시체육회) 이후 2년 만이지만, 3관왕을 거머쥔 건 박혜정이 이번 대회에서 최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었던 리원원(중국)은 합계 315kg의 개인 기록을 가진 세계 최강자이지만, 이날 인상 1, 2차 시기에서 130kg을 모두 실패했고 결국 기권했다. 박혜정은 장미란의 경기를 보고 역도를 하



겠다고 역도 선수가 된 '장미란 키즈'. 이후 세계 주니어 무대를 휩쓸며 '포스트 장미란'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별명에 걸맞은 활약을 이번 대회에서 자랑했다. 한국 역도 역사를 새로 쓴 박혜정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해 또 한 번의 금빛 사냥을 꾀한다. 뉴스

아시안게임 최초 축구 3연속 우승 노력 이강인 합류 늦어져 조기 진출이 중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3회 연속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황선홍호는 오는 19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소화한다. 대표팀의 목표는 새 역사 쓰기다. 한국은 지난 2014 인천 대회, 2018 자카르타-팔람방 대회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최초 3연속 우승을 꾀한다. 대만, 미얀마, 이란 등이 2연패를 달성한 적은 있으나 아직 3연패는 없다. 축구는 조별리그 3경기 후 토너먼트 등으로 가는 대장정의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23일 개막하는 본 대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다. 이에 황선홍호는 지난 16일 항저우로 출국했고, 19일 첫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 남자 축구는 23개 나라가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 일정을 치른다. 각 조 1, 2위 12개 팀과 3위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4

개조까지 총 16개 팀이 토너먼트로 메달 색을 가린다. 토너먼트 진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쿠웨이트뿐 아니라 태국(21일), 바레인(24일)을 조별리그에서 상대하는데 모두 전력상 한국보다 약체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황선홍호는 아직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미합류로 완전체를 꾸리지 못했다. 출국 직전 PSG와 별 조건 없이 현지시각으로 20일 일정 이후 항저우로 보내주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조지력 다지기에 실패했다. 이강인이 제 아무리 뛰어난 선수여도 팀 스포츠인 축구에 치명적인 변수다. 현실적으로 이강인은 바레인전부터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황선홍호는 이강인이 오기 전에 2승을 거두 조기에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된 뒤, 3차전에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는 방향을 그릴 전망이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아시아 호랑이'로서 적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지난 대회 두 번째 경기였던 말레이시아전에서 일찍의 패배를 당해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번 의외의 결과를 줄이기 위해 황선홍호



황선홍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웃으며 걸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는 17일 현지 적응에 돌입했고, 이날 저녁 훈련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대표팀 주장인 백승호(전북현대)는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첫 경기부터 완벽하게 보일 수는 없어도 차근차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꼭 금메달을 따도록 하겠다"며 매 경기 발전하는 대표팀을 약속했다. 뉴스